

# 大河기획/한라산 학술대탐사(204회)

제2부 한라대맥을 찾아서-(38)

제주의 역사·문화 체취 남긴 오름들

입력 : 2004. 07.16. 09:46:09



▲심산유곡이라 할까. 성진이오름·테역장오리·살쨍장오리 기슭을 흐르는 천미천 지류가 오름 숲속을 헤매는 탐사단에게 길잡이 역할을 해주었다./사진=강경민기자

○...대맥탐사팀은 7월 10일 다시 국립공원구역으로 들어갔다. 5·16도로변 방송국 송신탑이 있는 견월악 건너편에 있는 성진이오름을 경유해 테역장오리(울), 쌀손장오리(살쨍장오리)으로 이어지는 일정이다. 동부지역의 오름답사코스중 가장 힘들다는 이번 탐사구간은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의 자취를 잘 간직하고 있는 흥미로운 코스임에 틀림없다....○

견월교 천미천 지류에서 바로 오를 수 있는 오름이 성진이오름이다. 능선에는 다래열매가 풍성하다. 정상을 지나 테역장오리로 향하는데 성진이오름 남사면, 테역장오리 북서사면 기슭 해발 750m지점에서 원형이 잘 남아있는 솟가마터를 발견했다.

솟가마터 내부와 연기통까지 거의 원형에 가깝다. 가마터 내부는 장축이 320cm, 단축이 280cm 규모다. 세월이 흘러 내부가 많이 메워지기는 했지만 깊은 곳은 145cm나 된다.

이같은 솟가마터는 한라산 곳곳에서 보이는데, 이것은 한라산이 국립공원과 같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상당히 높은 지대까지 벌목이 이루어졌음을 설명한다고 할 것이다.

솟을 한번 구우려면 상당량의 나무가 벌채됐을 것이고, 그 면적 또한 엄청났을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은 울창한 숲으로 변했지만 불과 40~50년대에는 한라산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숫가마터는 우리에게 한라산 식생의 훼손과 복원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숫을 어떻게 구었고, 어떻게 사용하였으며,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는 어떤 애환이 깃들어 있는지도 생각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 줄 수 있는 체험자들도 이제는 상당히 고령에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하루속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주도지에 따르면 제주의 목탄생산은 지난 81년 32톤으로 마지막 집계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숫, 즉 목탄 생산량 통계를 보면 1957년부터 집계됐는데 1957년 49톤에 196만원으로 기록된 것을 시작으로 58년 56톤, 59년 28톤이고 이후 1963년 연간 최고기록인 800톤이 생산돼 금액규모가 1억9천76만원에 이르렀다. 이후 77년 100톤을 기록한 이후부터 계속 감소해 연간 100톤 미만으로 떨어지다가 연탄과 석유의 보급이 자리잡으면서 목탄 생산은 20년전 쯤 그 자취를 감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진이오름과 테역장오리 중간 계곡근처에 있는 숫가마는 한라산국립공원이 지정된 1970년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돌로 견고하게 쌓아서 지금까지 그 원형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테역장오리는 지명과는 달리 테역(잔디)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도 사람과 우마들의 출입이 금지되면서 식생이 다양해지고 울창해진 현상일 것이다.

'살썩장(화살을 쏘았던 곳)오리'는 삼성신화의 한 무대가 되는 곳이다. 삼성신화에 따르면 고랑부 세 신인은 이곳에서 활을 쏘아 일도, 이도, 삼도를 정했다는 사시복지의 무대로 전해져 왔다. 어떤 이들은 황당한 이야기로 치부할지도 모르겠지만 한라산에 수렵 나섰던 세 신인이 나즈막한 오름에 앉아 우리 탐사팀처럼 땀을 식히며 쉬다가 넓은 테역장을 향해 활을 쏘아 각자의 거처를 정했다고 해도 결코 황당한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살썩장은 이런 점에서 우리 조상들의 수렵문화의 단면을 더듬어 볼 수 있는 공간이다.

/특별취재팀

## [전문가리포트]미지의 두 오름 성진이·테역장오리

5·16도로 변에서 출발하여 성진이오름(星珍岳)과 테역장오리(울)를 차례로 탐사했다. 이 두 오름은 오늘날의 지형도에는 이름조차 등재되지 않은 오름들이다. 탐사 후에 나름대로 관련문헌을 찾아보았지만, 아직까지도 오름 이름의 유래조차 시원스럽게 밝혀져 있지 않았다.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테역장울(오리) 주변에는 물장울(水長兀), 쌀손장울(沙孫長兀) 및 화장울(火長兀: 불칸디오름)이라는 오름들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다. 몇몇 고지도(古地圖)에도 분명히 등장하고 있듯이, 이들 4개의 오름 이름에는 공통적으로 '장울(長兀: 장오리)'이란 단어가 사

용되고 있다.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묻혀지고 동시에 의미도 잃어버린 것인데 후손인 우리 세대가 반드시 그 의미를 찾아 복원해야 할 지명이라 하겠다.

성진이오름은 정상부인 분화구가 접시모양처럼 아주 낮게 패여 있으면서도 남동방향으로 개구(開口)된 형태를 보인다. 그리고 동서로 길고 완만한 타원형의 분화구가 남북방향에서 끌어올려지는 듯한 지형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성진이오름은 나무숲으로 인해, 그 형태가 정확히 원추형인지 말굽형인지를 가려내기가 매우 어렵다. 테역장오리는 북쪽으로 개구된 말굽형 오름이다.

테역장오리로 향하는 북서사면(해발 약 750m 지점)에서는 원형처럼 잘 보존된 솟가마 하나를 관찰할 수 있었다. 솟을 굽는 가마의 내부와 연기 배출구 및 불을 지피는 아궁이까지 아주 잘 남아 있었다. 지금까지 탐사하는 과정에서 솟가마를 발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솟가마는 숲 속의 경사지를 이용하여 땅을 약 1.5m 정도 파낸 다음, 안쪽 내부를 동그랗게 돌아가면서 약 110~150cm 높이로 지면까지 현무암을 쌓아 올린 형태였다. 그리고 가마내부의 면적은 약 1.5평 남짓으로 다소 작아 보였다. 따라서 한가족 단위로 솟을 구웠거나 또는 성인 남성 두 사람 정도가 짊어지고 갈 분량의 솟을 구운 것으로 추정되었다. 아무튼, 솟은 제주도민들의 생활에 있어서도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연료였음이 분명하다. 그렇기에, 이번에 발견한 솟가마는 제주도민들의 생활사를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광중 탐사위원( 제주교대 교수/ 인문지리분야 )>

## **[전문가리포트]신화와 전설 서린 뛰어난 地勢**

한라산은 태조산인 백두에서 시원(始原)하여 즐기치게 흘러 내려온 대맥이다. 그 힘솟는 지맥이 종산인 한라산에서 땀겨 제주의 생명력을 독창적으로 만들어 내는데 그 절정의 순간에 성진이오름 테역장오리 살썩장오리를 만났다. 신화와 전설이 살아 숨쉬는 중요한 지역으로 화산구조선의 한 부분으로 삼기도 하는 곳이다.

성진이오름은 문성(文星)의 한 형태로 산정의 윗 부분이 남북으로 평평하게 이루어져 있다. 풍수에서 대체로 산세를 기준하여 좌향을 정하지만 경우에 따라 별의 위치와 놓여진 형세에 따라 기운의 향방을 유추하고 운명을 예측하는 일종의 숙명론(宿命論)인 천문(天文)을 보고 터를 잡기도 하는데 성진이오름이 별을 의미하는 성신(星辰)이듯이 풍수적 지형으로 볼 때 하늘의 방위와 별을 관측하기에 적절한 지역으로 추측된다.

그와 유사한 것이 제주의 동북해변에 있으며 제주시 삼양동에 소재한 원당봉에 원당사 오층석탑이 바로 원나라 황통을 이을 아들을 점지한 '득남 명당'으로 잘 알려진 곳이다. 이곳은 풍수에서 말하는 '탈신공개천명(奪神工改天命)'으로 즉, '하늘이 주도하는 일을 빼앗아 하늘이 정한

운명을 바꾼다'라는 의미로 북두칠성이 잘 비치는 삼첩칠봉(三疊七峰)의 산세를 갖춘 곳이다.

테역장오름의 하단부는 풍수적으로 요건이 잘 갖추어진 곳이며 특히 테역장의 산체는 혈장을 잘 받쳐 주는 현무정(玄武頂)으로서도 일품이다. 좌우의 균형이 알맞고 능히 바람을 감추고 물이 좌우에서 감싸 안으며 흘러와 합치며 나아가니 기운이 서린 곳이 아니고 또 무엇이라.

그 곁에 있는 살쨍장오름에서 세 신인(神人)이 천지인(天地人) 삼법(三法)으로 지리를 갈랐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닐까 생각된다. 우주의 이치가 담겨 있는 지형·지세로써 역사적·인문적으로 새로운 조명이 필요한 곳으로 사료되며 제주정신의 맥(脈)과 연계한 후인들의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신영대 탐사위원(제주관광대 교수/ 풍수분야)>

후원 : 한국언론재단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